



준대형 하이브리드, 알페온 이어시스트 출시 25% 연비 향상, 배터리 포함 8년 또는 16만km 보증

“너무조용하다. 마치 시동을 걸지 않은것 같다”

“주행중에도 급가속시엔 너무 조용했다”

“하이브리드차량의 장점을 고루 갖춘차라는 느낌이다.”

지난달 28일 첨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알페온 이어시스트(Alpheon eAssist)'를 몰고 자유로를 달려본 기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지엠주식회사가 국내 준대형 모델 최초로 친환경 첨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알페온 이어시스트(Alpheon eAssist)'를 개발, 11월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한국지엠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사장은 “알페온 이어시스트는 글로벌 GM의 축적된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국내 최초의 준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며, “고성은 고효율을 실현한 알페온 이어시스트가 하이브리드 차량 대중화에 기여해 국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아카몬 사장은 “자동차 회사의

친환경 차량 개발은 미래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한국지엠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친환경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해 확대되고 있는 그린카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페온 이어시스트는 구동모터(MGU: Motor Generator Unit)의 출력을 벨트를 통해 엔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로, 알페온 이어시스트에 적용된 첨단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알페온에 탑재된 2.4리터 SIDI(Spark Ignition Direct Injection)가솔린 엔진에 17.6kW의 전기모터와 고성능 리튬-이온(Lithium-ion) 배터리를 구성했다. 알페온 이어시스트에 장착된 17.6kW 전기모터는 기존 알페온 엔진 성능에 최고 23.9마력의 엔진 동력을 보조해 가속 및 등판 성능을 한층 더 배가했다. 또한 모터의 토크를 적절히 조절, 제동 및 감속 시 소모되는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전기에너지로 전환,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전하며, 신도회기 등 정

차시에는 연비 개선을 위해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돼 공회전 시 소모되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이어시스트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된 6단 자동변속기도 변속 응답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가속시에는 이어시스트 시스템과 함께 고단 기어를 더욱 많이 사용함으로써 동력 전달 효율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알페온 이어시스트는 기존 알페온 2.4리터 모델 대비 25%의 향상된 연비를 실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2% 줄었다.

또한 속도 계기판 하단에 장착된 에코(ECO) 게이지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방식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운전자가 최대 연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연비(저 구름 저항)타이어를 적용해 성능과 연비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한국지엠은 알페온 이어시스트 차량의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배터리, 모터 등 이어시스트 부품에 대해 8년 또는 16만km의 국내 최장 보증 기간을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알페온 이어시스트

를 구입하면 정부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에 따라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세제 혜택 후 알페온 이어시스트 가격은 디럭스(Deluxe) 모델 3,693만원, 프리미엄(Premium) 모델 3,903만원이다. 이외에 차량 구입 후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최대 140만원, 공영주차장, 혼잡 통행료 등 지역별 다양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알페온은 국토해양부 주관 '2011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알페온의 기반이 된 뷰익 라크로스는 북미 고속도로 보험 안전협회가 2010년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정면, 측면, 후방, 차량전복 분야 모두 최상위 등급인 'Good'을 받아 '최고의 안전한 차(Top Safety Pick)'로 선정됐으며,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 조사국에서 2011년 실시한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 별 5개를 획득하는 등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리점 새 단장은 최근 뉴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발표 이후 전 임직원의 일체감 조성 등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쌍용자동차 브랜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간판은 입체감 있는 투명 아크릴과 LED를 사용해 시인성과 입체감을 높였으며, 인포메이션 데스크는 현재의 메탈 등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영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환함은 물론 고객의 니즈 및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대리점 개선 작업을 단행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이유일)가 변화하고 있는 기업이미지에 걸맞게 옥외간판 교체 등 전국 대리점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전국 150여 개 대리점의 간판 및 이미지월, 인포메이션 데스크 교체, 전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영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환함은 물론 고객의 니즈 및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대리점 개선 작업을 단행

현대차, 공식 페이스북 'Like H!' 개설



현대자동차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 보다 많은 고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해 현대차 공식 페이스북 'Like H!' (www.facebook.com/AboutHyundai)를 개설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현대차의 다양한 소식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 보다 많은 고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해 현대차 공식 페이스북 'Like H!' (www.facebook.com/AboutHyundai)를 개설했다.

현대차는 공식 페이스북 'Like H!'를 통해 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물론 매일 새로운 참여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현대차 공식 페이스북 'Like H!'는 ▲고객들과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나누는 참여 공간인 'Talking H!' ▲고객의 관심 차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riving H!'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페이스북 앱을 개발해 매일 새로운 이벤트를 펼치는 'Exciting H!'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공식 페이스북 개설을 기념하며 오는 11월 6일까지

'Exciting H!' 메뉴를 통해 현대차 페이스북 팬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직접 동화를 제작할 수 있는 '나만의 동화'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이번 개설 기념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주유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개설을 계기로 더 많은 고객들과 활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재밌는 이벤트가 함께 하는 'Like H!'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Like H!'는 페이스북의 고유 기능인 'Like'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Like(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기능)와 현대자동차의 이니셜 'H'의 합성어로, 현대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의미한다.

현대차는 이번에 개설한 공식 페이스북 외에도 공식 블로그(blog.hyundai.com) 및 트위터(twitter.com/About_Hyundai) 등 다양한 SNS 계정을 통해 활발한 소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는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임직원 <엔젤센터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6년째 운영하고 있어 화제.

일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고객 상담 센터인 <엔젤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일 상담원으로 변

화하여 상, 하반기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엔젤센터 일일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체험을 통해 “고객 최우선”의 가치를 공유하지는 취지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품질 본부장, 영업 본부장을 비롯 참석한 임직원만 해도 1,500명이 넘어 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고객지원 담당 송진희 부장은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 분 한 분 고객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임직원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상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 전반에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젤센터>는 100여명의 상담원들이 고객의 구매 및 정비 상담을 비롯한 각종 응급 상황, 불편 사항 등을 전화(080-300-3000)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쌍용차, 대리점 새 단장 이미지 강화



새단장을 마치고 환하게 점등한 쌍용자동차대리점의 야간 이미지.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이유일)가 변화하고 있는 기업이미지에 걸맞게 옥외간판 교체 등 전국 대리점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전국 150여 개 대리점의 간판 및 이미지월, 인포메이션 데스크 교체, 전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영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환함은 물론 고객의 니즈 및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대리점 개선 작업을 단행

전국개별화물업계 임직원 워크숍 성료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안전하고 신속 · 정확한 생활 물류의 구현을 통한 업계발전과 업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번 우리 개별화물업계의 워크숍에 보여주신 국토

해양부 관계자 및 여러 교통단체의 후의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 7만여 개별화물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국개별화물업계 임직원 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0-6 성협빌딩 2층 전화: (02) 587-0214(대) / FAX: (02) 594-0995